조용필 데뷔 첫 청음회…왜?

10년만에 낸 19집 '헬로' 전 수록곡 언론 공개
록 사운드에 중독성 멜로디…젊은 층에 어필
이례적인 행사…"열정·혁신 보여주고 싶었다"

23일엔 '쇼케이스'…포털 생중계 파격 행보도

'가왕' 조용필(63). 역시 그는 '젊은(?) 오빠'였다.

환갑을 지난 나이에도 웬만한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젊은 감각은 그대로였고, 음악 트렌드 역시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다. 그 스스로 강조한 '파격과 혁신'의 결과물이었다.

조용필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YPC 프로덕션에서 10년 만에 새 음반 19집 '헬로'의 청음회를 열고 전 수록곡을 언론에 공개했다. 23일 음반 발표를 앞두고 데뷔 45년 만에 처음으로 청음회를 여는 것은 그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넘친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가수들은 새 음반 홍보 차원에서 쇼케이스를 연다. 하지만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조용필이 사전 행사를 여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조용필의 소속사 관계자도 "오랜 기간 음반을 준비해왔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청음회를 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음반 발표일인 23일 오후 8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홀에서 팬들 앞에 신곡을 공개하는 '프리미어 쇼케이스'까지 연다. 이 무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 이국적인 영상미를 담은 '헬로'의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며 감각을 유지했다. 조용필의 '젊은 감각'이 더욱 돋보이는 대목이다.

조용필 측은 "그가 자신의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바꾸고 싶어 했다"면서 "뮤직비디오와 쇼케이스 무대 등을 보면 상상 그 이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19집 '헬로'의 발표에 앞서 전 수록곡 청음회를 열어 식지 않은 열정을 과시한 '가왕' 조용필. 스포츠동아DB

이날 공개한 수록곡은 10대부터 물론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악으로 다양하게 담았다. 특히 타이틀곡 '헬로'는 록 사운드에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가 인상적이었다. 버벌진트의 랩 피처링과 어우러진 조용필의 보컬은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가사도 '널 보면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 '헬로, 헬로, 너란 사람을 알고 싶어'라는 등 젊은 세대의 마음까지 그대로 표현했다. 최근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픈 현실을 담은 책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를 쓴 '논객'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가 퇴직자의 이야기를 노랫말로 쓴 '어느 날 귀로에서'는 조용필과 함께한 팬들을 위로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또 이번 앨범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2012년 그래미 '베스트 엔지니어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른 토니 마세라티가 믹싱을 맡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여배우 부재? 서른 한살 그녀들 살아있네

손예진, 영화 '공범' 드라마 '상어' 동시주연
김민희, '연애의 온도'서 연기 변신 흥행 질주

서른한 살 동갑내기 여배우들이 연예계 '핵'으로 떠올랐다.

손예진 김민희 김아중 이민정 등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는 여배우들이 흥미롭게도 1982년생 동갑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남자배우들에 비해 활약이 저조하다는 일부의 시선에도 30대의 짙은 성숙미를 더한 이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주인공은 손예진. 탄탄한 연기력과 흥행성을 갖춘 그는 봄부터 다시 왕성한 활동에 나선다. 한동안 멜로에 집중했던 연기 스타일에도 변화를 준다. 5월 방송하는 KBS 2TV 월화드라마 '상어'에서 의문의 사건을 파헤치는 열혈 검사 그리고 비슷한 시기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공범'에서는 아빠를 의심하며 살인 사건을 추리하는 딸이다.

최근 영화 '연애의 온도'로 주목받는 김민희도 다양한 장르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스릴러 '화차'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뒤 '연애의 온도'로 다시 흥행을 이루며 확실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김민희는 "서른 한 살, 지금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연기가 있다. 여러 색깔의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며 의욕과 함께 여유를 드러냈다.


손예진


김민희


이민정

김아중도 지난해 출연한 '나의 PS파트너'의 호평에 힘입어 또 한 번 로맨틱 코미디 영화 '온리 유'를 준비 중이다. 이민정은 대중에게 인정받은 매력을, 4일 방송을 시작하는 SBS 수목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에서 다시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실력과 인기를 갖춘 스타들. 10년 안팎의 연기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높아 잠재력 또한 상당하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데뷔한 지 10년이 지난 배우들로 그동안 여러 장르를 경험했다"며 "표현할 수 있는 연기의 폭이 넓어진 건 물론이고 자신에게 잘 맞고, 잘 할 수 있는 장르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나이"라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

박시후 측 "조사 불만…국민권익위에 감사 의뢰"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박시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사건 당사자 진술과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분석해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박시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두 차례의 피해를 각각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로 판단했다. 윤태봉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A씨 진술이 일관되고 업혀 들어가는 CCTV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관계 당시 A씨가 다친 혐의가 인정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박시후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시후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박시후와 A씨, A씨의 선배 B씨, 박시후의 전 소속사 황모 대표 등이 맞고소한 사건은 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이날 경찰 수사 과정과 결론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2월15일 함께 술을 마신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피소된 연기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첫사랑의 귀여운 포즈.' 수지가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MBC 월화드라마 '구가의 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현진 기자

'개콘' 김기리·신보라 4개월째 열애

"지난해 KBS 연예대상 시상식 후 교제 시작"


'개콘' 김기리와 신보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25기 동기 커플이 탄생했다. '개그콘서트'의 김기리(28)와 개그우먼 신보라(26)가 4개월째 열애 중이다.

신보라의 소속사 YMC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개그콘서트'에 함께 출연 중인 김기리와 신보라가 지난해 12월부터 만나 4개월째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개그콘서트'의 코너 '생활의 발견'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쌓아왔다. 지난해 12월 2012 KBS 연예대상 시상식을 기점으로 동료가 아닌 이성으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25기 동기로 워낙 가까운 데다 지난 연말부터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며 가까워졌다. 종교나 관심사 등이 비슷해 잘 맞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언급하기는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김기리는 KBS 2TV '개그콘서트'의 '전국구' 등에 출연 중이다. 신보라는 '생활의 발견'과 '거제도'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류시원, 부인 협박 혐의로 피소

배우 류시원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류시원의 부인 조모 씨는 류시원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류시원을 조사한 뒤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시원 측은 "이혼 소송을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부부싸움을 의도적으로 유도 녹취해 경찰에 고소한 사안이다. 약 2~3년 전 부부싸움 중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을 지금 고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류시원과 부인 조씨는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번째 이혼 조정을 벌인다.

김민정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개그맨 최효종 의무경찰 입대 지원 뒤늦게 알려져


개그맨 최효종(사진)이 의무경찰에 지원해 입대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효종은 2월 의무경찰에 지원, 면접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이에 따라 최효종은 올해 하반기 입대해 복무할 예정이다. 최효종은 현재 KBS 2TV '개그콘서트'와 '해피투게더3'에 출연 중이다.

심형래, 퇴직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서 선처 호소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의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심형래는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00억 원으로 시작한 영구아트무비가 영화 '디워' 등의 적자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주기 위해 결혼 예물까지 팔아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지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월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4시 열린다.

KBS '뮤직뱅크' 진행 이장우·유이 하차

KBS 2TV '뮤직뱅크'의 진행자인 연기자 이장우와 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KBS 예능국은 2일 "유이는 지난달 29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했고, 이장우는 5일 방송을 끝으로 MC 자리에서 떠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뒤를 이을 후임 진행자는 현재 섭외 중이다. 이장우와 유이는 2012년 1월6일부터 '뮤직뱅크' MC로 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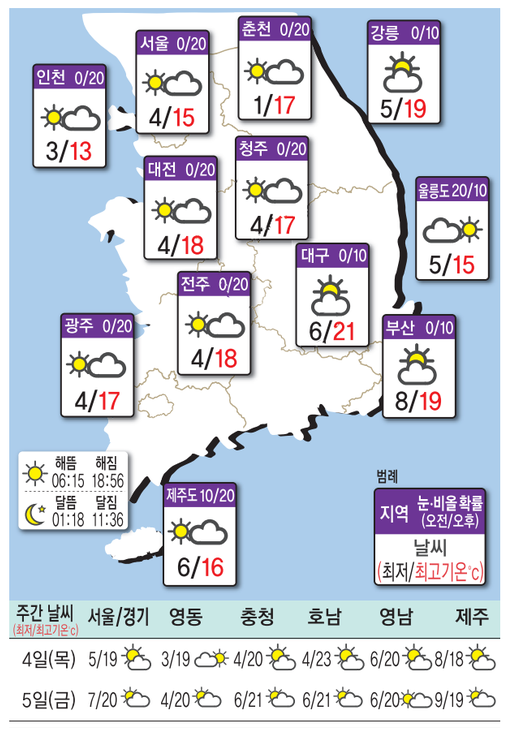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3월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무한도전'이 11.7%의 선호도를 얻었다. 특히 20대 여성(46%)과 남성(34%)의 지지가 컸다. 2위는 MBC '일밤-아빠! 어디가?'로 7.3%의 시청자가 응답했다. 그 뒤를 SBS 월화드라마 '야왕',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MBC 드라마 '마의' 등이 이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오늘의 날씨

4월 3일 수요일 (음력 2월 23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c)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4일(목)	5/19	3/19	4/20	4/23	6/20	8/18
5일(금)	7/20	4/20	6/21	6/21	6/20	9/19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대근 | 인쇄인 최맹호 | 편집인 이성춘 | 편집국장 양성동 | 광고국장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레저경제부 02 2020 1062
사진부 02 2020 1068
사업국 02 2020 1038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